럭키, 섬유용 유제 판매 고전

일본 수입제품에 밀려 300억원 시장점유율 5% 미만

국내 화학섬유업체들이 부원료인 섬유용 유제 사용시 수입품을 선호, 섬유용 유제 생산업체인 럭키가 크게 고전하고 있다.

국내 섬유용 유제(고속방사용) 수요는 1만2000톤, 300억원 규모(91년기준)로, 95% 이상이 일본의 Matsumoto, Takemoto로부터 수입 ·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는 국내 화섬업체들이 초기 개발제품 사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고정 거래선과의 관계를 내세워 국산제품 사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.

국내 유일의 섬유용 유제(고속방사용) 생산업체인 럭키(대표 최근선)는 올해 매출목표를 30억원(전체시장의 10%)으로 잡고, 화섬업체들이 애국적(?) 차원에서 국산제품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,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시되고 있다.

럭키(생활용품 연구소 섬유처리제 연구팀)는 국내 및 동남아시장을 겨냥, 85년부터 15억원을 투자해 연구개발에 착수한 지 5년만인 90년 13종의 섬유용 유제를 개발, 지난해부터 「하이텍스(HITEX)」라는 상표명으로 상업생산(생산능력 5000톤)하고 있다.

개발된 유제는 Polyester F · SF, Nylon F · SF, 아크릴 SF 섬유에 적용, 분당 1000m ~ 5000m의 초고속용이다.

섬유용 유제는 폴리에스텔 · 나일론 · 아크릴사를 생산할 때 끊어짐을 막고 결속성을 높여주며 정전기를 방지하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2/5/1>